

PA-30

기후변화에 따른 보리의 파종방법별 적정 파종량 재설정장현수^{1*}, 배희수¹, 안승현¹, 김육한¹, 윤종탁¹¹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,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**[서론]**

기후변화에 따라 동계작물의 생육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기존의 맥류 표준재배법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맥종 및 품종별로 천립중 차이가 커서 표준재배법에 명시된 파종량 기준(kg/10a)으로 파종할 경우 품종간 파종립수의 차이가 크므로 이에 따른 생산량 차이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본 실험은 바뀐 기상환경에서의 보리의 맥종별 파종량에 따른 수량성을 파악하여 적정 파종립수를 확인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공시재료는 쌀보리(흰찰쌀보리: 천립중 25g), 맥주보리(호품: 천립중 42.1g)이며 부안군 백산면 농가에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추파재배(10월 하순 파종)하였다. 파종방법은 휴립광산파(150×120cm)와 휴립세조파(줄간격 22cm) 2처리였으며, 파종량은 9kg/10a, 12kg/10a, 15kg/10a, 18kg/10a, 21kg/10a, 24kg/10a 6수준으로 하였다. 시비량은 N-P₂O₅-K₂O (9.1-7.4-3.9 kg/10a)이었으며, 요소는 기비, 분얼비를 사용하고 인산과 칼리는 전량 기비살포하였다. 조사내용은 각각의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맥주보리(호품)의 경우 휴립광산파는 파종량 18kg/10a 시험구에서 319kg/10a의 수량을 보였으며 21kg/10a, 24kg/10a와 통계적인 수량차이가 없었으며 파종량 9kg/10a, 12kg/10a, 15kg/10a과는 유의미하게 수량차이가 있었다. 휴립세조파의 경우 파종량 15kg/10a 시험구에서 256kg/10a의 수량을 보여 그 이상의 파종량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쌀보리(흰찰쌀보리)의 경우 휴립광산파는 파종량에 따른 수량의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, 이삭수 확보 측면에서는 15kg/10a 이상 확보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리하였다. 휴립세조파의 경우 18kg/10a 이상 파종시 수량성은 375kg/10a으로 그 이상 파종량과 통계적 수량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품종별 천립중을 고려한 적정 파종립수는 호품보리 휴립광산파의 경우 427,553립/10a(18kg/10a) 이상, 휴립세조파의 경우 356,294립/10a(15kg/10a) 이상이며, 흰찰쌀보리 휴립세조파의 경우 400,000립/10a(15kg) 이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.

[Acknowledgement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사업번호: PJ012547012019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Tel. +82-63-238-5273, E-mail. janghs331@korea.kr